

이재용·최태원·젠슨 황 등 韓美 AI 수장 한자리에 모인다

美 라운드테이블 형식 회동 추진
오픈 AI CEO 샘 올트먼 합류 가능성
기술협력·투자방향 등 논의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미국에서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이끄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미래 AI 기술 협력 확대와 투자 방향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그룹, 네이버, 엔비디아 경영진은 이번 주 미국 실리콘밸리 인근에서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회동은 오는 24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이해진 의장, 젠슨 황 CEO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의 합류 가능성도



지난 6월 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고깃집에서 이해진 네이버 의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삼겹살 회동 중 기념 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거론된다.

회동이 성사될 경우 메모리 반도체와 AI 반도체, 생성형 AI 서비스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례적인 자리가 될 전망이다.

황 CEO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와 SK그룹, 현대차그룹, LG,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을 잇달아 만

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한국 기업들과 협력 논의에 나서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만남이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생성형 AI를 아우르는 글로벌 AI 연합 구축과 생태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고 있

으며, 하반기 출시 예정인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에도 양사의 HBM4가 탑재될 예정이다.

양사는 오픈AI의 자체 AI 칩에도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플랫폼용 추론 AI 칩 생산과 엔트로픽의 차세대 AI 칩 위탁생산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기가와트(GW)급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에 진출한 만큼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팩토리는 GPU 서버와 데이터센터, 전력·냉각 설비 등 AI 인프라에 AI 모델과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한 대규모 연산 시설이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동맹을 맺고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및 공공 시장(B2G)으로 본격 진출하며 사업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1면 ‘삼성, 갤럭시Z 3종…’서 계속



갤럭시 Z 폴드 울트라.

/삼성전자

‘워치 울트라 2’ 등 공개 28일부터 사전판매 돌입

성능은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모바일 플랫폼이 담당한다. 5000mAh 배터리와 갤럭시 Z 시리즈 최초의 최대 45W 고속 충전, 듀얼 패스 충전 시스템도 적용됐다.

갤럭시 Z 플립8은 180g의 무게와 펼쳤을 때 6.1mm 두께로 휴대성을 강화했다.

폴드8 울트라와 폴드8에는 티타늄 합금 필름과 강화 티타늄 플레이트를 결합한 ‘플렉스 티타늄’ 기술이 처음 적용됐다. 내부 지지 구조와 힌지, 화면 장력을 개선해 내구성을 높이고 화면 주름은 줄였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최대 3000니트 밝기를 지원한다.

AI 기능도 한층 고도화됐다. 갤럭시 AI와 제미니이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과 콘텐츠의 맥락을 이해하고 배달·예약·쇼핑 등 40여개 앱을 연동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한다.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 워치 울트라2와 워치9도 공개했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2는 전작보다 35% 늘어난 800mAh 배터리와 최대 5000니트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두께는 10.7mm로 12% 줄였으며 10ATM과 IP69K 방수 등급, 국제 다이빙 장비 안전 규격인 EN13319 인증을 갖췄다.

갤럭시 워치9는 390mAh 배터리와 최대 3000니트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앞세워 수면을 포함한 일상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신제품은 오는 8월 7일부터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된다. 국내 사전 판매는 오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된다. 256GB 기준 가격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257만7300원, 갤럭시 Z 폴드8 227만8100원, 갤럭시 Z 플립8 168만3000원이다. 갤럭시 워치 울트라2 47mm LTE 모델은 96만9100원, 갤럭시 워치9은 모델에 따라 49만9000원부터 56만9800원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DX부문 사장은 “AI가 진화할수록 모바일 기기는 사용자를 가장 잘 이해하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갤럭시 Z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가장 완성도 높은 폴더블 제품으로 모바일 경험을 한 단계 진화시키고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차세대 인텔리전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TSMC, 美 투자규모 확대… K-반도체 고객사 확보 ‘적신평’

TSMC, 美 생산거점 확충 속도
파운드리 등 수주경쟁 격화 전망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미국 애리조나 투자 규모를 총 2650억달러(약 392조원)로 확대하며 현지 생산 거점 확충에 속도를 낸다. 첨단 패키징 시설까지 포함한 대규모 생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을 둘러싼 삼성전자의 추격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미국 애리조나 투자 규모를 기존 1650억달러에서 2650억달러로 확대한다. 추가 투자금 1000억달러는 반도체 생산공장과 첨단 패키징 시설 확충 등에 투입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빅테크 고객사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굳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TSMC는 현재 애리조나 1공장에서 4나노 공정을 양산 중이다. 회사 측은 현지 공장의 수율이 대만 주력 공장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2공장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은 장비 반입을 앞두고 있으며 3공장은 건설 중이다. 4공장과 애리조나 지역 첫 첨단 패키징 시설도 착공 준비에 들어갔다. 향후 계획까지 포함하면 애리조나에는 반도체 생산공장과 첨단 패키징 시설 등 총 12개의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이에 삼성전자의 북미 파운드리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며 북미 고객사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테슬라의 차세대 AI

반도체인 AI5와 AI6를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할 예정인 만큼 해당 공장의 안정적인 양산 여부가 향후 파운드리 경쟁력을 가능할 핵심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AI5는 최근 테이프아웃(시제품 양산)을 마치고 양산 준비에 들어갔으며, AI6 역시 삼성전자가 오는 2033년까지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테슬라 AI5·AI6의 성공적인 양산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대표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를 기반으로 엔비디아와 AMD, 애플, 퀄컴 등 미국 빅테크 고객사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TSMC가 미국 내 생산능력은 물론 첨단 패키징까지 선점할 경우 AI 반도체 고객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 정부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시설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까지 자국 내에서 수행하는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TSM

C의 대규모 투자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와 맞물려 미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투자가 삼성전자에 위기 요인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AI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특정 업체에 생산을 집중하기보다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복수의 파운드리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AI5·AI6 양산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에서 추가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 AI5·AI6를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첨단 패키징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향후 수주 경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삼성전자, 신용등급 A ‘트리플 크라운’ 기대

S&P, 등급전망 ‘긍정적’ 상향 조정
“최소 2년간 견조한 실적 이어갈 것”

삼성전자가 신용등급 A ‘트리플 크라운’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만 8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한국 기업 최대였던 올 1분기 영업이익(57조2000억원)을 56% 경신했다. 글로벌 테크 기업을 통틀어서도 엔비디아, 애플을 제치고 최대 영업이익 기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지난 21자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실적 호조를 반영해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S&P는 “긍정적 등급 전망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산

업의 구조적 성장 속에서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HBM 및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향후 최소 2년간 견조한 영업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견해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S&P는 삼성전자의 등급 전망을 상향하면서도, ‘AA-’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과 ‘A-1+’ 단기 발행자 신용등급, 선순위 무담보 채권에 대한 ‘AA-’ 장기 채권 등급은 그대로 유지했다.

S&P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제한적인 공급으로 메모리 업황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은 최소 2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장

기공급계약(LTA) 확대와 맞춤형 메모리 제품 증가도 실적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했다.

실적 전망도 대폭 높였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올해 683조원, 내년 821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지난해 91조원에서 올해 393조원, 내년 502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향후 2년간 연 81조~84조원 수준으로 확대되지만 잉여현금흐름도 올해 201조원, 내년 288조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HBM과 파운드리 사업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P는 삼성전자가 HBM4에 1c D램과 4나노 베이스다이를 적용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고, HBM3E에서 나타난 수율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TSMC의 생산

능력 제약이 이어질 경우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삼성전자가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서버용 D램과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AAA’등급 달성이 가시권이란 평가다.

S&P는 향후 장기공급계약 및 맞춤형 제품 확대를 통한 사이클 변동성 완화가 확인되고, HBM 시장 입지 확대와 견조한 순현금 포지션이 유지될 경우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스와 무디스는 삼성전자에 대해 각각 ‘AA-’ (안정적), ‘Aa2(안정적)’ 신용등급 부여하고 있다.



metro

/허정민 기자 zekova@